

군정비전 공시 본격 사업 착수 “백년대계의 꿈을 펼쳐보자”

무주군, 민선8기 공약... 풍요로운 문화관광·함께하는 주민복지 등 96개 세부사업 확정

무주군은 민선8기 무주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해 30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비전과 풍요로운 문화관광, 활력있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신뢰받는 섬김행정이라는 5대 군정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96개 세부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풍요로운 문화관광 분야는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 2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92억4,900만원, 지역경제 분야는 고랭지스마트 경영실습장 조성, 전군

민 기본소득 실현 등 2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52억2,400만원이다.

함께하는 주민복지 분야는 장애인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등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4억1,000만원, 지역맞춤 특색개발 분야는 목재 친화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마을조성 등 1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8억1,300만원, 신뢰받는 섬김행정 분야는 무주군 우수사책 군민선정, 열린군수실 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6,500만원이다.

96개 공약사업 총사업비는 4,500억 6,100만원으로 예산사업 88건 비예산사업 13건, 추진사업은 총 96개 사업

중 90건을 목표로 군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7월에 세부실천계획안을 마련하고 보고회 및 부서별 수정·검토 과정을 거쳤다.

10월부터 12월까지 무주군이 주최하고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주민배심위원단을 구성·운영해 조정안건 9건, 평가안건 6건에 대한 주민배심원 조정·평가를 했다.

군은 주민배심원단에서 심의·의결한 조정안건 9건에 대해 모두 수용하고 무주군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 활동 보고회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활동보고회를 갖고 총 역량을 발휘하기로 다짐했다.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국회 정부예산안에서 통과되면서 1부 능선을 넘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설립의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한바를 한 뜻을 모았다.

이날 활동 보고회는 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활동 영상 시청에 이어 김정미 문화체육과장의 경과보고, 정진욱 위원장과 황인홍 군수의 인사말,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그동안 함께해 온 문현중 전 행정복지국장(공로연수중)에게 꽃다발도 증정됐다.

황인홍 군수는 “추진위원회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첫 단계인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군민들의 열원인 사관학교 설립에 가시권에 들었다”라며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는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향후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법률 제·개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 정진욱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함께 황인홍 군수님 이하 전 군민들과 직원들이 땀 흘려 1차 관문인 사전타당성 용역비

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역량을 모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사관학교가 명문 대학원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년대계의 꿈을 펼쳐보자”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발족된 추진위원회는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범국민운동 전개와 서명운동 추진 등 국민 공감대 형성 기반과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열정을 쏟아왔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삼동회, 전북사회복지사업협회,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전북생활개선회, 전라북도이동장연합회,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등 기관·단체를 수십 차례 방문 사관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사관학교 설립 촉구 건의문을 이끌어냈다.

또한 유명 인물유언서들을 섭외해 전라서명운동과 함께 위인동굴,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등 무주군 일대에서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관학교 설립지지 서명활동을 비롯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를 방문하고 ‘태권도 샌드위치(샌드위치 신세의 태권도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태권도 살려!’, ‘샌드위치 태권도 이대로 두실 건가요?’ ‘스터커 부착’)와 사관학교 설립지지 호소문을 전달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30년 이상 '만년식당' 명품 현판식

진안군은 29일 진안을 진안판에서 '만년식당' 현판식을 가졌다.

만년식당은 30년 이상 운영한 진안군 소재 음식점 중 전통과 맛을 모두 갖춘 지역 특화 맛집으로 진안군이 인증한다.

진안에서 30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48개 중 2022년 만년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진안판, 제일순채, 전주가든, 마이산자연밥상, 백제회관, 다정식당, 서해복집으로 총 7개소(영업사실일 순)이다.

군은 희망한 업소에게 전문가 위생컨설팅 및 해충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위생·환경위생·편의시설 등을 평가해 만년식당을 최종 선정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장수군 드림스타트 Good-Bye 드림스타트 운영

장수군 드림스타트는 30일까지 드림스타트 서비스 종결 예정 아동 29명을 대상으로 'Good-Bye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운영한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서비스 종결을 앞둔 아동들이 가족들과 함께 직접 만들 수 있는 케이크 DIY세트를 지원해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아동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자 마련됐으며 비대면 방식으로 각 가정에서 진행됐다.

참여 아동은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것이 너무 즐겁고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수군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 보장, 문제의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해 만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고판호기자

진안 홍삼스파, 관광공사 2023년 1월 가볼만한곳 선정

홍삼 한방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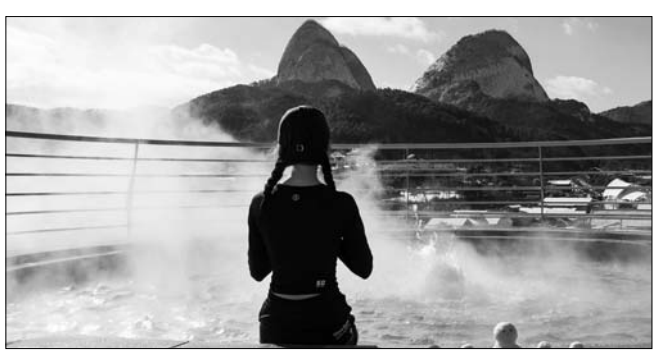
진안홍삼스파가 2023년 1월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됐다.

29일 진안군은 한국관광공사가 1월 추천 가볼만한 여행지로 진안 홍삼스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월 추천 가볼만한 곳의 테마는 '예뻐지는 여행'이다. 새로운 한 해의 활기찬 시작을 위해 몸과 마음을 함께 단장할 수 있는 전국 여행지 6곳이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마이산 북부에 있는 홍삼스파는 마이산을 보면서 노천욕을 즐기고 다양한 홍삼 한방 테라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홍삼을 기초로 음양오행을 구현한 홍삼스파는 크게 태극존, 음양오행을 이루는 테라피존, 마이산의 경치를 감



진안홍삼스파가 2023년 1월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됐다.

상하며 노천욕을 즐기는 아쿠아존으로 나뉜다. 숙박시설인 홍삼빌도 갖추고 있어 체류하며 다양한 테라피를 받고 스파를 즐길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오후 8시(일정바람시간 오후 5시)이고 아쿠아존은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시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문의는 063-433-0396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전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

무주군의 두문나화놀이축제, 통안마을축제와 공평놀이축제가 내년도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로 선정되면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두문마을의 낙화놀이, 통안마을의 '내비야 놀자'와 초리마을의 '공평놀이축제'가 2023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로 선정되면서 도비 지원을 받게 돼 양질의 프로그램과 더욱 많은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전망이다.

2023년 전라북도 시골마을 대표 작은

축제로 선정된 두문나화놀이는 낙화놀이 시연을 통해 무주 안성의 전통문화놀이를 계승하고 관광객 유치, 농산물 직거래 등 도시민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중 겨울축제로 선정된 무주공평놀이축제는 무주군 적상면 초리마을 일원에서 가족과 함께 이색체험을 즐기는 축제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공평놀이축제는 2017년부터



개최해왔으며, 올해에도 12월 3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 안성면 공평리 통안마을 일원에서 펼쳐지는 통안마을 '내비야 놀자' 축제는 2023년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중 지역특화형 축제로 최초 선정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연말연시 맞아 온정의 손길 줄이어

29일 무주군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에 장학금과 성금 기탁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날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신화 3백만 원, (유)한양이엔지 2백만 원 (유)성림고속관광 1백만 원, 행복운수협동조합 1백만 원, 무주명가에서 장학금과 성금을 각각 1백만 원, 농업회사법인 장안들은 떡국떡 150개를 기탁했다.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팽주봉 대표는 “청소녀들이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날 (유)한양이엔지가 무주군을 찾아 (재)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양현민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의 유능한 인재육성에 헌신하는 재단에 감사드리고 기탁금이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성림고속관광 김은미 대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 살리

기를 통해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 지역에 다시 되돌려 드리고 싶었다”라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행복운수협동조합 송봉현 대표는 “코로나 물가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지역주민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무주명가 김민주 사장은 “우리의 아이도 반디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림 최동현 대표는 “무주군장학발전장학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해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장안플 박수훈 대표는 “곧 다가올 새해를 맞아 무주군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전달해 달라”면서 떡국떡 150개를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기탁했다.

황인홍 군수(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 이사장)는 “성금과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